

여수 ‘1000만 관광도시’ 위상 확립…4년 연속 돌파

올해 여수를 찾은 방문객이 1000만명을 돌파하며 ‘1000만 관광도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여수를 찾은 누적 방문객 수는 지난 9일 기준 1037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부터 4년 연속 1000만 관광객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1032만명) 대비 약 5만명 증가한 규모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10월 들어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번 성과로 여수시는 4년 연속 1000만 관광객을 달성하게 됐다.

특히 10월 한 달 동안 방문객 수는 137만명을 기록해 지난해 동월(102만명)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하루 휴가를 쓰면 최장 10일간의 긴 추석 연휴와 더불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다채로운 축제와 여수만의 특화된 관광 콘텐츠가 쾌청한 가을 날씨와 맞물리며 관광 수요 확대에 힘을 보탠 것

로 분석했다.

또 지난 9월 관광업계의 자정 노력과 친절 서비스 확산을 위해 추진된 ‘민·관 합동 친절관광 캠페인’과 여수 아절의 매력을 선사한 ‘캔들라이트 콘서트’ 등 10여개의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형 관광

축제·야간관광 프로그램 호응…10월 한달간 34% ↑

정기명 시장 “관광 만족도 강화…따뜻한 추억 선사”

을 유도한 점도 효과를 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달 7일과 8일 일간 방문객이 집중됐으며, ‘2025 여수동동북축제’와 ‘2025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등 주요 축제도 대성황을 이뤘다.

주요 방문 관광지로는 여수엑스포박람회장, 해상케이블카, 오동도, 전라좌수영거북선, 예술랜드 등 여수를 대표

하는 명소들이 꾸준히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정기명 시장은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를 방문하신 분들의 관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2022년 이후 3년 만의

1200만 방문객 달성을 목표로 연말까지 다양한 행사를 이어가며 여수를 찾는 분들과 따뜻한 추억을 선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연말까지 ‘여수의 밤, 천동소리’, ‘아름다운 소리, 웅천’, ‘2025 일레븐브릿지 마라톤 대회’ 등을 개최해 관광 활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광장에서 2025여수거북선 축제가 열리고 있다.



김철우 군수는 최근 국회를 찾아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조계원 예결위원, 문금주 의원 등을 만나 보성군 핵심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국가 차원의 지원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철우 보성군수, 내년 국비 확보 ‘총력전’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 등 만나 지역 현안 지원 요청

김철우 보성군수가 2026년 국비 확보를 위해 예산 심의 관련 국회의원들과 면담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12일 보성군에 따르면 김철우 군수는 최근 국회를 찾아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조계원 예결위원, 문금주 의원, 서상석·황영선 최고위원, 서영교 의원, 전제호 해양수산부 장관, 문대립 의원 등을 만나 보성군 핵심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국가 차원의 지원 당위성을 설명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울포항 국가어항 신규 지정 설계용역비 건의, K-Ta 보성말차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보성별고 세계자연유산 지역관리센터 건립 사업 등이다.

특히 울포항은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을 통해 보성군 최초 국가어항 예비대상항으로 선정됨에 따라 총 717억원(국비 100%)을 투입해 항 내 기본 시설과 관광시설을 종합해 새롭게 조성할 예

정이다.

김 군수는 남해안 해양관광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울포항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울포항 설계용역비 반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말차 유행(말차코어)에 대응하기 위해 보성의 노후 가공시설을 현대화하고 글로벌 표준에 맞춘 고품질 말차 생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별고갯벌의 생태 보전·연구·교육 기능을 수행할 ‘지역관리센터’ 건립 필요성도 함께 건의했다.

김철우 군수는 “정부의 재정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지만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마지막까지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8@gwangnam.co.kr

순천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 ‘탄력’

시, 문체부 공모 선정…국비 등 52억6000만원 확보

순천시가 추진 중인 남해안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2일 순천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서 ‘순천 남해안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로 국비 40억원에 이어 연관 사업비 도비 12억 6000만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 기반을 공고히 했다.

2026년도 공모사업에서 국·도비 52억 6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지속

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 종합스포츠파크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확보 조건 또한 충족됨에 따라, 순천시는 향후 중앙투자심사 재신청 등 본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남해안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는 총사업비 465억원이 투입된다.

대룡동 일대에 약 32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야외체육시설 등 다양한 생활체육 인프라가 들어설 예정이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김성 장흥군수, 현장서 주민 목소리 듣는다

24일까지 ‘군민과 대화’…생활밀착형 건의사항 검토

김성 장흥군수가 군민들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지역 내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12일 장흥군에 따르면 김성 군수는 최근 장평면과 장동면에서 “2025년 하반기 군민과의 대화(마을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좌담회는 주민 생활현황을 직접 찾아가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마을회관을 방문해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며 생활 불편과 지역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장평면에서는 용강1구, 두봉, 임리 마을을 차례로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지역 일자리 확충, 도시가스 공급, 승강장 신설 등 생활밀착형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임리마을의 폐교 부지에 조성한

‘농산어촌 유학마을’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며 학생 수 증가와 함께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사례가 큰 관심을 모았다.

오후에는 장동면 울리, 복교2구, 장항 마을을 방문해 빈집 정비, 맨발 걷기길 조성 등 지역 현안사업을 논의하고, 고령화에 따른 교통 불편 해소와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성 군수는 “군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곧 행정의 나침반이다”며 “현장에서 들은 건의사항은 신속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흥의 발전은 행정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



김성 장흥군수는 군민들과의 현장 소통을 위해 최근 장평면과 장동면에서 “2025년 하반기 군민과의 대화(마을좌담회)”를 진행했다.

는 과정이다”며 “소통과 공감에 살아 있는 현장 중심 행정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민과의 대화는 지난 5일 유치면을 시작으로 10일 장평면과 장동면,

11일 장흥읍과 부산면, 13일 관산읍과 용산면, 14일 회진면과 대덕읍, 마지막으로 24일 안양면까지 총 6일간 10개 읍·면의 30개 마을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고흥 도시재생 축제 ‘고흥 비어락’ 성료

수제맥주 브루어리 중심…무제한 시음존도 운영

고흥군은 최근 고흥읍 고흥전통시장 인근 수제맥주 브루어리 일원에서 도시재생 수제맥주 축제 ‘고흥비어락(Beer樂)’을 개최해 많은 방문객이 찾은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축제는 지역민을 비롯해 방문객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흥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 거점인 수제맥주 브루어리를 중심으로, 지역 자원과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도시재생의 가능성을 실감케 했다.

축제의 시작을 알린 오프닝 세리머니 ‘컬러밤(Color Bomb)’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해 색채의 파우더를 뿌리며 축제의 분위기를 열었다. 현장은 음악과 조명이 어우러져 활기찬 에너지를 더하며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브루어리 일원에서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해 창의력을 발휘하는 ‘은 캔버스’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대형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며 공동벽화를 완성해 가족 단위 체험과 함께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다. 또 브루어리 일대에 조성된 ‘컬러풀 브루가든’은 수제맥주 무제한 시음존으로 운영됐다.

고흥의 자연색을 담은 조명과 분위기 조성으로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참가비 1만원을 내면 고흥사랑상품권 5000원을 환급했으며, 수제맥주 무제한 시음과 함께 컬러밤 티셔츠 무료 제공,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돼 만족도가 높았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고흥군이 마련한 도시재생 수제맥주축제 ‘고흥 비어락’이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곡성토란페스타, 가을 만끽 피크닉 자리매김

잔디밭 돗자리서 즐기는 여유…부모·아이 참여 행사 풍성

최근 디톡스테라피센터 앞 잔디광장에서 ‘2025년 곡성토란페스타: 가을 풀풀 피크닉’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곡성토란도란농촌융복합사업단이 주관했으며, 곡성의 대표 특산물인 토란을 주제로 한 가족 중심형 가을 축제로 기획됐다.

이틀 동안 500여명의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관람객의 대부분이 가족 단위로 참여해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며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행사장에는 곡성의 토란가공업체 미스터공기, 가랑드, 푸드파파&B, 삼기품영해 디톡스테라피저점센터 치유협동조합과 카페 테라엔이 참여했다. 이들은 토란 타르트, 토란부각, 토란떡볶이, 토란잎밥, 토란소시지, 토란밀크티 등 다양한 토란 메뉴를 선보이며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특히 ‘토란그림 보물찾기’와 ‘토란 무제한 담기’ 등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에 즐거워하는 방문객들의



모습이 행사장 곳곳에서 눈길을 끌었다. ‘토란스포머 종이접기’는 현장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토란 향초 만들기’는 매화 사전 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군 관계자는 “토란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과 체험을 즐기며 곡성토란의 매력을 알아가는 방문객들의 모습을 보니 함께 즐거웠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곡성토란의 가치와 가능성을 다시금 확인한 만큼, 내년에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